

창조적 기술혁신은 기업성장의 원천

제3차 '벤처CEO 포럼 개최 ... 벤처육성에 대한 정부 역할 재정립 제기돼

벤처기업협회와 전자신문사가 주최하고 매일경제TV가 후원하는 '제3차 벤처CEO포럼'이 지난 7월 31일 제주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영락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 '한국의 기술혁신 전략과 기업성장의 원천'을 주제로 강연했고, 이어 정회훈 이커뮤니티 대표, 한정화 한양대 교수, 임윤철 기술과가치 대표, 노학영 컴텍코리아 대표 등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포럼의 주요 논의들을 요약한다.

다음은 최영락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기조 강연 '한국의 기술혁신 전략과 기업성장의 원천'을 요약한 글이다.

한국경제성장의 특징은 대기업과 제조업에 치중한 불균형 성장이라는 점이다. 선진국을 조기에 따라잡기 위해 수출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육성 정책 때문이었다. 한국의 경제성장 주요경제지표를 보면 경제발전이 급격히 이뤄졌으며 수출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의 특징적 양상 또한 한국경제성장의 특징과 비슷하다.

R&D투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특히 초기 정부주도의 투자에서 현재는 민간주도체제가 완전히 정착됐다.

기술혁신의 과정은 제1세대 선진기술도입과 개량 단계, 제2세대 생산기반 기술혁신 단계, 제3세대 독자운영 기술혁신의 3단계로 크게 나뉜다.

현재 '과학기술중심사회' 지향을 위한 정책상의 핵심이슈는 세계수준의 창의적 연구인력 확보, 기본기술 역량 확충, 지역 R&D역량 확대, R&D의 세계화, 기술집약형 벤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이다.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이 활발했던 부문인 DRAM, CDMA,



TFT-LCD, 조선, 자동차, 철강의 발전 원천과 경쟁력 및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속도의 경제(Economy of Speed)의 성취, 역동적 능력(Dynamic Capability) 형성 등으로 간추릴 수 있다.

과학기술 선진국 달성을 위한 핵심으로는 첫째 세계수준의 품질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역량 및 생산기술의 확보, 둘째 세계수준의 부품 및 특화제품을 공급하는 기술집약적인 벤처 중소기업의 육성, 셋째 창의적 원천기술 및 S/W를 창출하는 과학기술지식기반의

구축 등이다. 특히 정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술혁신 성공사례로 보는 벤처기업을 위한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술에 관한 통찰력과 기술혁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탑매니지먼트의 역할 중요 ▲명확한 기술적 목표 설정 ▲기업내부와 아웃소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네트워킹 컨셉 ▲사업목표와 기술적 통찰력이 결합된 기술경영 중요 ▲연구인력의 특성을 이해와 효율적인 관리 필요 ▲연구개발팀과 시스템의 효과적 구성 ▲속도의 경제 등이다.



사회 : 정희훈(이커뮤니티 대표)
 패널 : 한정화(한양대 교수), 임윤철(기술과가치 대표),
 노학영(컴텍코리아 대표)

벤처CEO포럼 패널들의 토론내용

최원장의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다음은 패널들의 질의와 최원장의 답변 내용이다.

한정화(한양대 교수) : 기업이 R&D나 이노베이션을 통해 선진국의 고부가가치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그러한 위험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른 질문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에 관한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테크노 헤게모니에서 한국이 어떻게 포지셔닝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최영락 :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위험부담은 결국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과학기술정책수단에 관한 논의에서도 정부의 지원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근본적 투자는 정부가 해야 한다.

중국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만불과 2만불달성의 문제와 같다. 한국이 축적한 잠재력은 1만불을 달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

임윤철(기술과가치 대표)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전략과 과학기술 전략이 따로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이를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로 넘겨주는 기술은 많이 부족하다. 최근 차세대 성장엔진에 관해 정부부처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정책들이 오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

최영락 : 과거 정부의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이 따로 돌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최근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세부처의 R&D투자과 사업들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차이점, 간극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차세대 성장엔진 관련해 일부 신문에 나오고 있지만 8월 중 대통령께서 새 경제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과거의 정책은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비중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부문, 응용에 비중을 둘 것이다. 기업에 수요하고 연계하되 기업이 할 수 없는 기초 기본기술개발 또한 계속될 것이다.

노학영(컴텍코리아 대표) : 최근 금융기관에서 “IT산업이 한물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IT산업의 중요성을 정부에서 강조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의 홍보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최영락 : IT만이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다 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과장되어 말해지는 것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 성공모델도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벤처 없는 한국경제는 없다. 내부 연구팀과 함께 이쪽 분야에 관해서도 연구하겠다. **IKOVA**